

# MILAL & WORLD 6

장애인 전도 / 봉사 / 계몽

밀알&세계





## 표지사진

지난 5월17일, Buena Park Middle School에서 열린 발달장애인을 위한 제41회 사랑의마당축제에서 모든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며 환호하고 있다.

### 02 | 칼럼

7시에 울리는 천국의 알람

### 04 | 감동의 선율

텍사스밀알 오케스트라 제4회 정기연주회

### 06 |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된 하루

밀알과 친구들이 함께한 Castle Fun Park 나들이

### 08 | 함께 살아가는 신앙

아가페의 이름으로 함께 걷는 길

### 10 | 밀알과 함께

선한 능력으로

### 12 | 행사 리포트

발달장애인을 위한 제41회 사랑의마당축제

### 14 | 하나님 안에 거하는 기쁨

보이지 않는 사랑, 내 삶을 바꾸다

### 16 | 2025 장애인의날 에벤에셀의 밤

찬양과 간증 가운데 임하신 주님의 능력

## 밀알&세계

남가주 • 북가주 • 시애틀 • 밴쿠버 • 텍사스 통합판

통권 제292호 | 2025년 6월호

발행인: 이재서 | 편집인: 최재휴 | 편집책임: 이준수

지역별 구독문의

남가주: 562-229-0001 | 북가주: 408-605-2134

시애틀: 425-444-1669 | 밴쿠버: 604-339-4417

텍사스: 267-467-5971

월간 <밀알&세계>는 장애인들과 함께하길 원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하며 정성껏 만듭니다.

월간 <밀알&세계>에 관한 좋은 의견이나 문의가 있으신 분은 mweditor@milalsca.org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칼럼

# 7시에 울리는 천국의 알람

사람은 하루에도 여러 번, 많게는 수십 번 알람을 맞추며 살아갑니다. 회의 알람, 약 먹는 알람, 출근 준비 알람, 심지어 ‘기도 좀 하자’는 알람까지... 하지만 저에게는 시계에 없는 아주 특별한 알람이 있습니다. 바로 워싱턴 밀알선교단 저녁예배가 있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 7시에서 7시 15분 사이... 정확히 그 시간에 울리는 전화벨 소리 - 용탁이와 혜진이의 전화입니다.

용탁이는 학습장애를 가진 형제입니다. 말투는 조금 느리지만, 그의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고, 깊습니다. 그리고 혜진이는 나와 동갑내기 친구... 같은 장애를 갖고 있지만 지금은 백혈병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은 그 시간만 되면 어김없이 전화를 합니다.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애네 알람 맞춰 놓은 거 아냐?” 예배 후 모여 있는 사람들끼리 농담처럼 하는 말이지만, 가끔은 정말 궁금해집니다.

전화 내용은 뭐 별거 없습니다. “밥 먹었어요?” “뭐 먹었어요?” “맛있었어요?” “거기 지금 누구 있어요?” “사랑의교실(매주 토요일 진행되는 장애아동학교) 갈 때 라이드 몇 시에 와요?” 그리고는 한 명씩 바뀌며 주변 사람들과 통화를 이어갑니다. 누가 그 자리에 있는지 묻고, 꼭 한 명도 빼놓지 않으려 애씁니다. 그 정성과 순수함에 때때로 웃음이 터지고, 때때로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런데요, 그 전화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저에게 묵상과도 같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마음을 다해 전화해본 적이 있었던가? 사랑한다고 말은 했지만, 그렇게 꾸준히 누군가를 찾아가 본 적이 있었던가? 매주 두 번, 몇 년을 그렇게 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그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마음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건 그냥 ‘안부 전화’가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고, 잊지 않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전화를 들을 때마다 마치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애야, 너도 이렇게 사랑할 수 있지 않니?” 하시는 듯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마태복음 25:40). 그리고 그 ‘지극히 작은 자들’이라 여길 수 있는 용탁이와 혜진이가, 사실은 저보다 더 크고 깊은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걸 보며, 저는 어느

순간부터 ‘그들이 진짜 천국의 알람이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알람… 멈춰 서게 하고, 돌아보게 하고, 다시 사랑하게 만드는… 그런 알람… 사역이 바쁘고, 일은 끊이지 않고, 하루가 정신 없이 흘러가도 그 전화 한 통에, 저는 다시 중심을 잡습니다. ‘사랑은 결국, 시간을 내는 것’이라는 아주 단순한 진리를…

이번 주엔 꼭 혜진이 심방 가려고 합니다. 용탁이랑도 밥 한번 먹으려 합니다. 그들의 전화에,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을 만나는 건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7시에 울리는 벨소리… 그건 단순한 전화가 아니라 저를 사랑으로 다시 부르시는 천국의 알람입니다.

글 | 정진정 목사 (위성탄밀알 단장)





| 감동의 선율

## 텍사스밀알 오케스트라 제4회 정기연주회

저 개인적으로 '4'라는 숫자를 좋아합니다. 날마다 죽는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자아가 죽어지는 것이 승리이기에 '죽을 死'자와 음이 동일한 숫자 4를 좋아하죠. 그 숫자의 연주 만큼 오케스트라가 성장해왔고, 올해 제 4회 정기연주회를, 이번엔 8월이 아닌 5월에 개최했어요. 8월에 연주회를 하니 여름사역들과 겹쳐서 집중하기가 어려워 올해부터 5월에 연주회를 갖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디렉터의 부재 등 여러가지 일들이 연주회의 발목을 붙잡았지만, 주님께서 주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많이 토의하며, 기도하며 연주곡을 선정하였어요. 그 과정 중에 한국에 있는 어느 작곡자께서 자신이 편곡한 곡을 기부해 주셔서 장애인 연주자들도 함께 할 수 있는 음악을 만들어 주셨어요. 열심히 모든 곡들을 열심히 준비한 모든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참 감사했어요.

연주회 날은 아침부터 분주했답니다. 200개의 샌드위치를 만들어 리셉션을 준비하는 백 집사님 가정과 주님의

교회 지체들의 수고가 있었고, 무대를 준비하는 봉사자들은 오후 이른 시간부터 나와서 의자와 보면대를 정리하고, 연주자 대기실을 준비하는 섬김이 있었어요. 거기에 제자침례교회 담임목사님과 사역자들의 협력이 무대를 빛나게 하는 숨은 조력자들이었어요.

연주회에는 제자침례교회 윤도진 목사님의 기도로 문을 열었고, DK Foundation에서 장애인장학금 수여식을 하는 순서로 진행했어요. 이곳을 통해 밀알선교단도 후원금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랑의교실 학생들의 드럼 연주를 필두로 연주가 시작되었죠. 연주 직전까지 큰 소리로 말하며 도망가려 했던 학생들이 연주자리에 앉으니 연주자의 포스를 풍기며 멋지게 첫번째 순서를 마무리했어요. 얼마나 가슴이 뭉클하던지요.

시온성과 같은 교회의 원곡인 Haydn의 'String Quartet Op.76 No3'을 4명의 연주자가 연주하는 곡이지만, 6명으로 편성해서 연주하였어요. 그리고 '만유의



주재’, ‘예수 사랑하심은’, ‘Amazing Grace’가 오케스트라로 연주되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는 남성 솔로(David Choi)가 파세토로 노래를 불러 더 깊은 여운을 남겼고, ‘날 구원하신 주 감사’는 여성 솔로(Elisa Baek)가 감사에 합당한 몸 찬양으로 함께 노래했어요. 피아노 솔로(Haylie Lim)로 시작한 ‘주 예수 나의 산 소망’은 마스터 코럴이 함께 마무리를 지어 예수님을 더욱 높이는 시간이었고, 청각장애인 한 분이 Sign Language로 노래하고 가사가 영상으로 청중들에게 들려지고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아름다운 조화를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곡으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오케스트라와 마스터 코럴이 함께 연주하였고, 달라스교회협의회 회장이신 신자점 목사님의 축복기도로 마친 감동의 75분이었어요. 연주 후에는 로비에서 아카데미 학생들의 그림이 전시되었고, 맛있는 샌드위치를 먹으며 아쉬운 여운을 달래는 시간을 가졌어요.

음악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고, 밀알의 한 Mission인 ‘계몽’을 목적으로 조직된 오케스트라가 점점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이번 연주회였어요. 성장통을 겪으며 커가듯이 오케스트라가 함께 치유하며 같이 성장하는, 그래서 우리의 약함이 강함을 부끄럽게 하는 말씀을 성취하는 도구로 사용되길 기대합니다. 연주회를 위해 함께 해주었던 여러 지역교회, 봉사자, 연주자들, 밀알단원, 부모님들, 이주영, 주찬양 선생님, 그리고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텍사스밀알선교단으로 연락주세요.

글 | 채경수 목사 (텍사스밀알 단장)



## 밀알과 친구들이 함께한

지난 4월 12일, 밴쿠버밀알은 아보츠포드에 위치한 Castle Fun Park를 방문하여 특별한 하루를 보냈다. 이번 행사는 장애인 친구들과 밀알러들이 함께 어울려 놀이와 교제를 통해 기쁨과 사랑을 나누는 따뜻한 하루가 되었다.

박소울 밀알러는 이 날을 이렇게 회상했다. “고카트를 타러 갔을 때, 밝은 햇살 아래에서 미소 지으며 운전하는 친구들의 모습이 제 눈에도 이

렇게 예뻐는데, 주님의 눈에는 얼마나 더 예쁘게 보이셨을까 생각하게 되었어요.”

Castle Fun Park에는 모두가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액티비티가 준비되어 있었고, 특히 고카트, 미니 골프, 다양한 게임 등은 친구들과 밀알러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황재성 밀알러는 “이안이가 선생님 어디 있냐는 물음에 저를 찾았어요”라며 “이번 아웃팅은 단순한 놀이 이상의 감

동이 느껴졌어요”라고 말했다.

이날의 액티비티들은 단순한 ‘놀이’에 그치지 않았다. 많은 밀알러들은 “게임을 통해 친구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며, 평소와는 다른 방식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고 고백했다. 그 중 권용진 밀알러는 “믿음이가 볼링 게임을 하면서 너무 즐거워하는 모습이 기억에 남는다”며 “친구들이 즐거워했던 순간들이 가장 뜻깊었다”고 전했다.



# Castle Fun Park 나들이

Castle Fun Park에서 보낸 이 하루는 단순한 즐거움이나 나들이를 넘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 되는 공동체의 기쁨을 다시금 체험한 시간이었다. 장애 유무를 떠나 함께 웃고, 서로를 격려하며, 진심을 나누는 이 경험은 모든 참가자들의 마음 속 깊이 새겨졌다. 많은 밀알러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오히려 우리가 더 큰 감동을 받았어요. 친구들의 순수한 기쁨과 반짝이는 눈빛을 보며, 하

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만남을 허락하신 이유를 느낄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서는 이 날, 마음속에 사랑을 심어 주셨고, 작고 소중한 만남들을 통해 큰 기쁨과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두가 함께 웃고, 함께 놀고, 함께 기도한 이 하루는 그냥 지나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 예비하신 특별한 선물이었습니다. 저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뜻 가운데 준비된 시간, Castle

Fun Park에서의 하루는 친구들과 밀알러 모두에게 잊지 못할 따뜻한 기억과 소중한 추억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글 | 박은지 (밴쿠버밀알, 2024-05 밀알러)

주: ‘밀알러’는 밴쿠버밀알의 자원봉사자를 지칭합니다.

| 함께 살아가는 신앙

## 아가페의 이름으로 함께 걷는 길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작은 교회의 장애인 가족 초청예배에 열 살쯤 되어 보이는 한 아이가 엄마 손을 꼭 잡고 들어섰습니다. 아이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눈은 바쁘게 이곳저곳을 살피며 마치 '새로운 세상에 발을 들여놓은 탐험가'처럼 보였습니다. 엄마는 익숙지 않은 표정으로 성도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도, 아이가 환하게 웃는 것을 보고 조심스럽게 예배당에 앉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지금 만나는 이 공간이 과연 하나님의 품처럼 따뜻할까?”

장애가 있는 자녀를 키운다는 것은 어쩌면 ‘평생을 준비 없이 뛰어드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출발선에 섰을 때부터 이 여정에는 안내자도, 지도를 건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 우리 아이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걸까?’라는 질문 앞에서 많은 부모는 믿음조차 흔들리는 절벽 끝에 선 심정이 됩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밤 늦게까지 일터에 남고, 어머니는 아이의 특수 치료를 위해 매일 동네를 누빉니다. 둘 다 지쳐버리면, 서로를 이해할 시간조차 사치가 됩니다. 그렇게 어떤 가정은 교회를 떠나고, 어떤 가정은 기도마저 놓아버립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실 교회를 떠난 것이 아니라 ‘이해받지 못하는 자리’를 떠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중심은 늘 가장 작은 자에게 향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아이를 무릎에 앉히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마 18:5)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는 이 말씀 앞에 무엇으로 대답하고 있을까요? 우리 교회의 예배당은 소리를 내는 아이, 앉아 있지 못하는 아이를 품을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그들의 부모가 ‘여기는 내 자리가 맞다’고 느낄 수 있을 만큼 따뜻한 눈빛과 행동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저는 장애사역 현장에서 수많은 부모님들을 만났습니다. 부모님들 대부분은 단지 ‘정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해’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그들의 고단한 하루를 알아주고, 교회가 그들의 아이를 단순한 ‘봉사 대상’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봐 주기를 소망합니다.

밀알선교단은 지난 수십 년간 이 귀한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밀알이 떨어져 밀밭을 꿈꾸는 길이었습니다. 이제는 지역교회가 함께 걸어주셔야 할 때입니다. 단 한 가정이라도,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단 한 명의 아이라도, 교회에서 웃을 수 있도록 우리의 교회됨을 새롭게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썩어진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일이 지속되어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함께 살아가는 신앙’을 다시 배우는 시대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예

배를 통해, 교제를 통해, 그리고 장애를 이해하는 진심 어린 관심을 통해 우리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 아가페의 공동체로 불리워져야 합니다.

오늘도 예배당 문 앞에서 주저하는 한 가족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는 손길을, 우리의 교회가 먼저 내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크기와 상관없이 없습니다. 사랑의 크기에 달려 있습니다. 채워진 사랑의 마음들이 연합한 사람들의 손을 마주 잡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손끝에서 복음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글 | **김정기 목사** (복가주밀알 단장)



## 선한 능력으로

간증을 해달라는 말을 전해받고 처음엔 부담스럽고 내가 해도 되나 싶었지만, 이 간증의 의도는 특별한 능력과 착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저 같이 평범하고 죄 투성이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까지 효율성과 이득을 따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시간을 들여서 하는 일에는 반드시 돌아오는 이득이 있어야만 했고, 그 중에 해당되었던 큰 부분은 봉사였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대학 입시 준비를 위해선 고등학교 때부터 성적 뿐만이 아니라 치열한 과외활동들이 필수이고, 그 중에서도 봉사 시간을 쌓는 건 기본이죠. 그래서 저는 이력서에 적기 위해 학교들이 좋아할만한 그럴싸한 다양한 봉사 활동을 했습니다. 유일하게 제가 하지 않

은 봉사활동이 바로 밀알이었습니다. 모두 다 하는 그 흔한 밀알 봉사, ‘나는 안 하겠다’라는 거만한 생각으로 말이죠.

그러다 12학년이 되던 여름방학 때, 친한 친구의 권유로 가벼운 마음으로 놀러간다는 마음으로 한번 밀알 사랑의캠프에 갔습니다. 제가 2박 3일동안 담당하게 된 밀알 친구는, 그 당시에 10살로 밀알 친구들 중에서도 스펙트럼이 높고, 좀 다루기 힘든 순간들이 올 거라는 얘기를 전해받아 걱정했지만, 놀랍게도 저는 그 친구와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장애 스펙트럼을 떠나 그냥 10살짜리 순수하고 귀여운 막내동생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대학교에 가고, 거기서 옛 중 고등부 전도사님의 권유로 시간 될 때 토요일마다 몇 번 밀알에 갔었습

니다. 거기서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그렇게나마 봉사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첫 여름, 이젠 용기를 내어 제가 먼저 연락을 해 밀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만났던 그 10살이었던 어린이는 이제 15살 소녀가 되어있었고, 저는 다시 만난 그 2박 3일이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제가 호텔 로비를 걸어가면서 생각했던 게 아직도 생생히 기억 나네요.

“하나님, 이게 바로 땅에 있는 천국인 건가요? 천국은 이런 느낌인가요?” 처음으로 천국이 이런 모습인 걸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2박 3일 동안 호텔 안을 돌아다니다 보면 온 사방에 순수한 아이 같은 친구들이 있었고, 또 그걸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봉사자들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밝게 웃고 먼저 인사해주는 친구들... 그 친구들을 보면서 마음의 벽도

무너지고 배우고, 같이 융합되는 그 장면이 너무 아름답고 벅찼습니다.

11년 전에 담당했던 10살 귀여운 밀알 친구 덕분에 그냥 마냥 즐거웠고, 대학 졸업하고 나서 5년만에 다시 돌아간 밀알에서는 그 한 친구 뿐만 아니라 다른 장애인들이 collective group으로 눈에 들어왔고, 그 다음해에는 장애인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단지 몇시간으로도 육체적으로 지치고 또 정신적으로도 한 순간도 긴장을 놓을 수 없는데, 아이들 부모님들은 늘 이렇게 지내야 하는구나 하며 그들의 마음을 아주 조금이나마 알아볼 수 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저와 늘 동행하시며 매년 새로운 관점을 보여주십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기적이고 계산적이었던 제가 지금은 황금 같은 주말에 봉사 섬김을 아무런 대가 없이 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입니다.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에 기록된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저는 outreach 봉사

를 통해 이렇게 순종하고 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베드로전서 4:10-11)라는 말씀처럼 사람마다 은사가 각각 있는 만큼, 순종의 모습이 다를 수 있겠죠. 혹시 아직 그 모습을 찾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돌이켜보면 11년 전 제 친구도, 중고등부 전도사님도 어찌 보면 한번 건넨 말들이었지만, 하나님은 용기가 없었던 저에게 그들을 보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사람들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웬지 한번 나가면 계속 헌신해야 할 것 같고, 한번도 안 해본 일을 하기엔 낯설고 어색하고, 누군가랑 같이 해야 할 것 같고... 난 잘하는 게 없는데 가서 뭘 해야 하지라며 고민하며 작은 용기

를 못 내고 있을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저에게 사람들을 보내어 섬김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이번엔 이 간증이 그 역할을 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면 좋겠습니다. 원래 처음이 어렵다는 말처럼, 부담 없이 한번 해봐야지, 한번 나가봐야지, 도전해봐야지, 섬겨봐야지 라는 마음으로 밀알에 한번 나와 보시면, 그 한번이 두세번이 되고, 그리고 그렇게 삶의 기쁨으로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한가지라도 제대로 잘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저같이 특별한 재능도, 재주도 없는 사람도 오로지 마음의 중심으로 하고 있으니, 저보다 훨씬 뛰어난 재능을 가지신 여러분은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을 크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글 | **홍다현** (뉴저지밀알 스텝)





Lee 전도사가 인도하는 ANC온누리교회 GM팀의 찬양으로 시작된 예배에서는 ANC온누리교회 James Jang 장로의 기도에 이어 Enoch Lee 형제가 특송을 불렀으며, 이종선 ANC온누리교회 부목사가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또 보이스카웃 단체 '278 & 1278 Troops'이 진행하는 flag ceremony를 관람한 후 남가주사진작가협회의 협조로 모든 참가자들이 모여 기념촬영을 하였습니다.

이후 각 부스에 마련된 푸짐하고 맛있는 음식으로 점심 식사를 하였는데, 올해는 특별히 HABIT BURGER GRILL 트럭이 2대나 와 맛 좋은 햄버거를 제공하여 즐거움을 더했습니다.

식사 후 계속 진행된 2부 순서에는 SOW(Seed of Worship)팀의 찬양공연과 장애인과 함께하는 신나는

댄스파티, 또한 양희원 집사(남가주밀알)의 사회로 진행된 재미난 레크리에이션과 행운권 추첨의 푸짐한 상품 등으로 참석한 발달장애인과 가족, 그리고 봉사자들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낸 후 김장호 Happy Village 국장의 폐회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 이번 행사를 위해 VOD 서비스업체 OnDemand Korea에서 경품 티켓으로 후원하였고, 보이스카웃과 OC지역 청소년봉사팀 HOPE, 밸리지역 청소년 단체 Loving Hearts 등도 정성스런 봉사로 행사에 힘을 보탰습니다.

올해도 여러 교회, 단체의 정성어린 노고와 협력으로 사랑의마당축제를 개최하여 발달장애인들을 비롯한 많은 참가자들이 행복해하며 주위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글 | 남가주밀알 홍보부





| 하나님 안에 거하는 기쁨

## 보이지 않는 사랑, 내 삶을 바꾸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족한 입술로 하나님을 간증한다는 것이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일이지만, 필라델피아밀알 이재철 목사님의 격려로 펜을 들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정은 2006년 남편의 유학으로 미국 오하이오주에 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공기업에 다니던 남편은 회사의 스폰서로 MBA 과정을 밟게 되었고, 직장 생활을 하던 저 또한 퇴직 후 함께 미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딸 윤서와 함께 세 식구의 미국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윤서는 당시 다섯 살이었는데 너무 말이 늦어져서 고심을 하다가 검사를 받게 되었고, 결국 발달장애 판정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첫아이가 장애를 가졌다는 사실을 우리 부부는 선뜻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여전히 아이는 말을 하지 못했고 암울한 시간을 보내야만 하였습니다.

20년 전, 오하이오는 서부나 동부에 비해 한인 커뮤니티가 거의 없었습니다. 많은 이민자들이 그러하듯, 저희 가정도 지인의 인도로 콜럼버스의 한 한인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불신 가정에서 자랐고 교회 생활을 해보지 않았지만, 교회에서 제공되는 점심 식사가 너무도 맛이 있어 저로 하여금 교회에 계속 나가도록 만들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로마서 10:17) 말씀처럼, 7개월 동안 설교 시간에 즐기만 하던 저에게 어느 날 ‘50/50’이라는 단어가 들려왔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존재할 확률이 50%라는 말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숫자에 민감했던 저는 ‘믿어서 크게 손해 볼 게 없는 딜(deal)’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믿고 싶습니다. 저 열심히 있는 성도들처럼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응답이 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예배를 통해, 성도들과의 교제에서, 성경을 읽는 시간 속에서, 기도를 드리는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요일4:16)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요 15:9) 주님이 저를 만나 주셨다는 것, 보이지 않는 주님을 만났다는 것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전히 고민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변화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저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섬김의 사랑을 경험한 뒤로 저는 더 이

상 부모님, 친구, 남편, 세상에게서 ‘받기만’ 하려는 삶을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38년 동안 지독하게 이기적으로 살아온 저였지만, 이제는 아주 조금, 소심하게나마 받은 사랑을 나눠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누군가로부터 “천사 같다”는 칭찬을 듣는 것을 보며 너무도 기뻐했습니다. 관계가 늘 어려웠던 부모님께 처음으로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표현했고, 딸 윤서에게 “윤서야, 사랑해”라고 말하며 초보 엄마로서의 섬김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윤서로부터 “엄마, 사랑해요”라는 말을 듣는 행복한 엄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저와 함께 계셨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고 그 주님을 거부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그 단절은 곧 사람들과의 사랑의 단절로 이어져 제 삶은 메말라 있었습니다. 이민자의 삶이 항상 기쁘고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환경이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믿음이 좋아졌다고 우리 아이의 장애가 치료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후 우리 가정에 아들 상희를 주셨고 두 아이를 키우며 누구보다 행복하게 가정을 꾸려가며 신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누나를 챙기는 아들의 모습이 대견스럽고, 이제 모든 것을 넘어 주님을 신뢰하며 사는 우리 가정이 귀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성령의 동행하심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밑알 식구들도 날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글 | **이일희 집사** (필라델피아밀알 단원, 윤서 어머니)



| 2025 장애인의날 에벤에셀의 밤

## 찬양과 간증 가운데 임하신 주님의 능력

뉴욕밀알이 주최한 2025 장애인의날 행사 ‘에벤에셀의 밤’이 4월 26일 오후 6시, DMOS(150-24 Northern Blvd)에서 개최되었습니다. 300여 명이 행사장을 꽉 채웠습니다. “열두광주리”에서 후원해 주신 만찬은 어느 때보다 풍성했습니다.

메인 이벤트는 7시부터 시작했는데, 올해도 한희준 K-pop 가수가 사회를 맡아서 하객들에게 큰 기쁨과 행복을 선물했습니다. 원활한 행사 진행은 장애인의날의 의미를 더욱 빛냈습니다. 인투교회의 이정원 부목사님의 기도가 있었고, 한인동산장로교회 이풍삼 목사님의 말씀인도가 있었습니다. 장애인의날 행사에 꼭 맞는 말씀을 주셔서 자리하신 모든 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또한 허연행 프라미스교회 목사님께서 대뉴욕 지구한인교회협의회회장님으로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셨고, 김광석 뉴욕한인회장님도 자리해 주시고 축하 인사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윌리엄 친구의 축하공연으로 행사 분



위기는 더욱 다가올랐습니다. ‘God is good’, ‘Out here on my own’ 등 우리 귀에 익숙한 곡들을 연속해서 열창해 주어서 모든 분의 마음을 축축히 적셨습니다. 이날 한 차례 비가 내렸는데, 비와 음악이 잘 어울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밀알 친구들의 공연은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뤘습니다.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목록가를 불렀는데, 친구들이 그 동안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는지 정말 매끄럽게 잘해 주어서 뿌듯했습니다. 자리해 주신 모든 분들이 큰 박수로 화답해 주었습니다.



이날 간증의 시간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정재은 선생님은 십년 동안 밀알의 미술반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한 시간이 은혜로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증거해 주셔서 많은 분들에게 뜨거운 은혜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정재은 선생님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음을 고백하면서 친구들의 작품을 일일이 소개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친구들의 마음을 알아가면 친구들과 더욱 가까워지고, 그만큼 우리의 인생도 깊어지고 아름다워진다는 간증은 많은 분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행사가 끝나자 모든 분들은 전시된 친구들의 작품을 다시 한 번 더 감상하고 그 앞에서 사진을 찍고, 축하 인사를 해주셔서 행사 분위기는 마치는 시간까지 은혜가 이어졌고, 행사가 끝난 후까지 많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과 개입하심이 있었음을 느끼게 되었고, 이번 행사를 통해 밀알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더욱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글 | 뉴욕밀알 홍보부

## | 남가주

**2025 밀알 서부지역 연합 사랑의캠프 개최**  
 ‘2025 밀알 서부지역 연합 사랑의캠프’가 6월26일(목)~28일(토)까지 California State University at Long Beach Campus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사랑의캠프 주제는 ‘Run for the Prize (믿음의 경주)’이고, 주제 성구는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 “운동장에서 달음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음질하라”입니다.

사랑의캠프에 참가하는 장애인들과 봉사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번 캠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수해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상급을 다 받을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캠프 주제를 정한 것입니다.

또 ‘Run for the Prize’란 캠프 주제에 맞게 마라톤, 사이클, 수영 등 ‘철인삼종경기(Triathlon)’를 약식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랑의캠프 참가 신청은 5/31까지 하시면 되고 참가비는 \$250입니다.

또한 사랑의캠프 펀드레이징을 위해 커피방향제(\$25), 비프저키(\$35), 참기름(\$30), 평창 한끼나물(\$15) 등 물품판매도 진행되고 있으니 필요한 물품이 있으시면 남가주밀알 사무실로 연락주시시오. (562-229-0001, Email: admin@milalsca.org)

### LA 화요예배 (5월)

- 6일: 조영건 목사님께서 “깊어지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대표기도는 이영주 사모님이, 특송은 안미영 권사님이 섬겨주셨습니다. 저녁 친교는 이정호 집사님이 준비해주셨습니다. 또 5월 생일 맞은 분들을 축하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 13일: 행복한교회에서 예배를 섬겨주셨습니다. 행복한교회 담임이신 정전하 목사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대표기도는 김용기 전도사님이, 특송은 김길용 장로님, 김희재 집사님, 전용정 사모님이 섬겨주셨습니다. 저녁 친교도 행복한교회에서 준비해주셨습니다.
- 20일: 이종희 단장님이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대표기도는 양춘모 성도님이, 특송은 이용진 집사님이 섬겨주셨습니다.

### OC 목요예배 (5월)

- 8일: 문성철 선교사님이 “왜 우리는 복음만 전해서는 안되는가?”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고, 대표기도는 진현숙 권사님이, 특송은 마이클림 형제님이 섬겨주셨습니다. 저녁 친교는 밀사모에서 준비해주셨습니다. 또 5월 생일 맞은 분들을 축하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 15일: 이종희 단장님이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대표기도는 송진영 형제님이, 특송은 수어찬양팀이 섬겨주셨습니다.
- 22일: OC한인교회 부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대표기도는 안미영 권사님이, 특송은 지련의 자매님이 섬겨주셨습니다. 또 저녁 친교 역시 OC한인교회에서 준

비해주셨습니다

### 사랑의교실 (5월)

- 3일: Adult 브랜치에서는 기차를 타고 San Clemente 바닷가로 다녀왔습니다. 바다를 걸으며 사진도 찍고, 자연 속에서 즐거운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 10일: ELA 브랜치에서는 어버이주일을 맞아 어머님들을 초대했습니다. 포토부스, 공연, 음식과 함께 따뜻한 감사의 시간을 나눴습니다.
- 17일: 사랑의교실 가족들이 함께 마당축제에 참여했습니다. 각 교회에서 모여 음식도 나누고 공연도 즐기며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눴습니다.
- 24일: LA 브랜치에서는 ‘사랑의 나눔 상자’를 만들어 이웃에게 전했습니다. 작지만 정성 가득한 마음이 모여 따뜻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 31일: Torrance 브랜치에서는 보드게임과 컬러링 활동을 함께 했습니다. 서로 웃고, 좋아하는 색을 표현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 남가주밀알 6월 기도제목

- 남가주밀알의 모든 사역을亨通하게 이끌어주시고, 장애인 전도, 봉사, 계몽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장애인들에게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 LA화요모임, OC목요모임이 계속 은혜롭게 진행되어 밀알가족 모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기쁨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 토요 사랑의교실 6개 브랜치가 은혜가운데 안전하게 진행되고, 교사, 봉사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며, 참가자들도 적극적으로 예배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 2025년도 밀알 장학생들이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더욱 온전한 하나님의 일군들로 준비되고 학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 6월26일(목)~28일(토)에 개최되는 ‘2024 사랑의캠프’가 하나님의 은혜가운데 잘 준비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 | 북가주

### 화요예배 (5월)

- 6일: 임마누엘장로교회의 성도님들과 교제하며 예배드렸습니다. 새누리교회의 힐링하모니 친구들이 찬양과 연주를 통해 참여해주셨습니다. 12학년을 졸업하는 김택용 형제가 마지막 연주로 섬겨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대학생활의 새로운 날들에 가득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김정기 목사님께서 이사야6장으로 ‘거룩 거룩 거룩’이란 주제로 설교해 주셨습니다.
- 13일: 세계선교침례교회의 성도님들의 섬김으로 풍성한 식사교제를 하였습니다. 밀알찬양단의 기쁨의 찬양으로 예배하며 함께 교제하였습니다.
- 20일: 산호세한인장로교회를 방문하여 함께 교제하며 예배드렸습니다. 늘 풍성한 만찬을 준비해 주시는 많은 성도님들과 귀한 찬양으로 섬겨주신 찬양단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27일: 산호세 동산교회의 섬김으로 저녁만찬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임택규 담임목사님

의 말씀선포와 더불어 예배드리며 성도의 교제를 함께 했습니다.

### 산호세 사랑의교실 (5월)

- 5월 한달동안 점심식사로 섬겨주신 산호세 영락교회, 세화교회, 임마누엘장로교회, 새소망교회의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17일(토)은 북가주밀알 가족소풍으로 모여서 즐거운 봄소풍을 다녀왔습니다. 산호세 사랑의교실 가족들과 산타클라라 사랑의교실 가족들이 모두 함께 모여서 교제하였습니다.
- 2025년 사랑의캠프 등록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친구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전을 할수 있도록 도움을 주실 캠프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다양한 활동들을 섬겨주실 자원봉사자를 기다립니다. 미술, 게임, 체육활동, 태권도 및 다양한 사회활동 지도 및 함께 도와주실 수 있는 분들의 선한 영향력을 환영합니다.

### 산타클라라 사랑의교실 (5월)

-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가위로 오려서 십자가를 만들고 그 위에 실을 돌렸습니다. 한 명씩 나와 자기가 만든 십자가를 보여주면서 자신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예수님의 사랑의 풍성함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날씨도 화창하고 꽃도 피어 있는 아름다운 공원에 갔다 왔습니다. 30분정도 차를 타고 가는 거리에 있는 Bay 옆에 있는 공원이라 바다도 볼 수 있어서 더욱 좋았습니다. 공원을 걷는 길도 잘 정리되어 있어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친구도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맘도 훌리고, 기분도 좋고 함께 간식을 먹고 마실 수 있어서 더욱 좋았습니다.
- 팝콘의 맛은 영화를 보면서 먹을 때 더욱 풍성함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밀알 친구들이 선택한 'The Son of God'라는 영화였습니다. 맛있는 Fried chicken을 만들어 주신 Mercy & Peace와 팝콘 기계를 가져오셔서 팝콘을 만들어 주신 집사님에게 감사드립니다.
- 사람에게는 기쁨, 슬픔, 버럭, 까칠, 소심 등의 여러 감정이 있습니다. 청년밀알 친구들 개개인의 감정을 부적포를 오리고 풀로 붙여서 표현을 하였습니다. 각자가 만든 감정을 여러 친구들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쁨이 있는 친구, 사랑이 넘치는 친구, 고민이 있는 친구들 자기들의 감정을 서로 나누어주어서 감사했습니다.
- 지속적으로 성경 쓰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으로 볼펜을 잡고 눈으로 성경을 보고 한 글자 한 글자 종이에 써내려 가면서 입으로 읽고 하는 시간은 지루하지 않고 미소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친구들 마음에 담겨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 북가주밀알의 5월 기도제목

- 연약한 지체들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유영준 목사님(항암), 장연화 자매님(재가장애인), 도한철 선교사님(루게릭), 로사 자매 아버지(건강회복), 이은희 작가님(신장투석), 윤정환 형제, Jean Kim자매(건강회복)>

- 밀알미용실 원장님이신 씨니 집사님께서 2달동안 한국방문 중이십니다. 행복한 만남 되실 수 있도록 건강을 지켜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세요.
- 사랑의캠프를 위한 펀드레이징으로 '밀알참기름'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랑의 손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 밀알 부모님들이 성령 충만케 하시고,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밀알 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 밀알 사역자들이 지치지 않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 지역교회의 장애인예배를 통하여 교회의 회복과 하나님나라의 경험이 날마다 확장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 사랑의캠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모두 안전하고, 오가는 길 어려움이 없도록, 비행기 스케줄이 변경이 없도록, 건강하고 기쁨이 가득한 행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 | 시애틀

### 시애틀 사랑의교실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인사드립니다. 사랑의교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3일 사랑의교실은 시애틀 형제교회 다운타운캠퍼스와 이성호 순에서 오셔서 봉사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성호 순장님께서 게임을 직접 준비해 주셔서 직접 진행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전에 예배와 크래프트, 음악 수업을 하고, 맛있는 점심을 먹었습니다. 이날 점심은 시애틀 온누리교회에서 맛있는 식사를 대접해 주셨습니다. 한올이가 오랫동안 나오지 못하다가 다시 나오게 되었습니다. 잘 적응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식사도 즐기는 시간으로 모두가 즐겁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사랑의교실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밀알의 모든 스태프들과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준 목사 425-444-1669, 남성식 디렉터 425-361-9368)

### 시애틀 밀알아카데미(S.M.A)

매주 화요일 성인 장애인을 위한 정기모임이 있습니다. 춤바, 음악수업, 크래프트, 탈춤, 산책, 마트 장보기, 영화보기 등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6일에는 얼더우드 몰에 가서 외식을 했습니다. 다양한 가게에서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음식을 주문해서 먹었습니다. 이날 로고스라이프교회 박성진 목사님께서 식사를 대접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North Creek Park에 가서 산책을 했습니다. 사진도 찍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완연한 봄의 날씨를 만끽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 넘치는 SMA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더 많은 봉사자(남자 봉사자)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봉사자들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봉사자로 자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타코마밀알아카데미(T.M.A)

매주 목요일 타코마 성인 장애인 정기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예배, 음악수업, 체육, 크래프트, 산책, 견학 등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8일 TMA는 예배와 음악수업 점심식사로 풍성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송인숙 간사님께서 수술을 하셔서 회복 중에 계십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코마에 이전 완연한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좋은 날씨로 앞으로 야외 활동을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기대합니다. 올해에는 TMA의 귀한 사역이 더 풍성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밀알에 귀한 사무실과 사랑의교실 장소를 제공해 주신 시애틀연합장로교회에 감사
- 타코마 사랑의교실에 장소, 식사를 준비해 주신 타코마중앙장로교회에 감사
- SMA 장소와 15인승 Van을 사용하도록 해주신 시애틀 형제교회에 감사
- 매월 1회 SMA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 시애틀 주연약교회, 낮은올타리교회에 감사
- 매월 1회 사랑의교실을 위하여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 시애틀연합장로교회, 시애틀 형제교회, 온누리교회, 웨더렐웨이중앙장로교회에 감사

### 알립니다

- 6월 1일(주) 오후 5시, 타코마삼일교회에서 밀알의 사랑이야기 음악회가 있습니다.
- 올해 여름 사랑의캠프는 6월 27일~29일 까지 워밍치에서 있습니다.
- 시애틀형제교회 Star Ministry(장애인 주일학교)예배가 주일 오후12시에 있습니다.
- 타코마제일침례교회 사랑부 예배가 주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 시애틀 온누리교회 사랑부 예배가 주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지역에 장애인(자폐 및 지적장애인)이 있으면 장애인 예배를 소개해 주세요.
- SMA(시애틀 성인장애인 모임), 매주 화 오전 10:30~오후3:00 성인장애인을 위한 예배와 활동(음악치료, 검도, 요가, 산책, 시장보기, 체육, 외부활동)이 있습니다. 주위에 성인 장애인들을 위해 봉사하실 봉사자가 있다면 밀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 시애틀 형제교회 빌딩2, 109호)
- TMA(타코마 성인장애인 모임), 매주 목요일 오전 11:00~오후3:00 성인장애인을 위한 예배와 활동(음악치료, 요가, 산책, 시장보기, 체육, 외부활동)이 있습니다. 주위에 성인 장애인들을 위해 봉사하실 봉사자가 있다면 밀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 타코마중앙장로교회)

### 밀알에서 필요한 것

- 사랑의교실 친구들의 사회적응프로그램을 지원할 개인과 교회를 찾습니다. (견학, 스포츠게임, Dancing, 태권도 지도, 동물원 관람 등 사회적응프로그램 재정지원)
- 매주 토요일 사랑의교실에 필요한 점심과 간식을 제공해 주시고 봉사해 주실 교회나 단체, 개인이 필요합니다. (종이접시, 컵, 수저, 포크, 냅킨, 물도 필요합니다)
- 매주 S.M.A(화) 와 T.M.A(목) 성인장애인

예배와 활동 모임에 점심식사와 간식을 제공할 교회와 개인을 찾습니다. (20명)

### 기도해 주세요

- 밀알 사역이 잘 준비되고 진행되도록
- 장애인 사역에 헌신된 사역자와 봉사자를 보내 주세요.
- 사랑의교실과 S.M.A & T.M.A친구들과 가정, 봉사자를 위하여
- 새로 온 사랑의교실 장애인 친구들과 봉사자들을 위하여
- 지역사회 장애인들이 맘껏 이용할 수 있는 '밀알아트센터'가 세워지도록
- 매주 화, 목요일 진행되는 성인장애인의 모임인 SMA, TMA를 위하여
- 사랑의교실이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되도록
- 타코마제일침례교회의 사랑부(장애인)사역을 위하여
- 시애틀 형제교회 장애인 주일학교 Star Ministry(장애인)를 위하여

## | 밴쿠버

### 밀알 사랑의교실 Happy Together

사랑의교실 Happy Together는 행복한 예배와 즐거운 프로그램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밀알에서 행복한 친구들과 밀알봉사와 함께 성장해 가는 밀알러들이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지난 해 가을 학기부터 새롭게 시작한 소그룹프로그램은 친구들의 참여와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목표를 향하여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4월 26일과 5월 10일에 로마서 8:15를 본문으로 "By him we cry, 'Abba, Father!'" 말씀을 전했습니다. 점심식사를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월 12일 아보츠포드 뉴라이프교회 (담임목사 방현), 4월 26일 갈릴리교회 (담임목사 김광식), 5월 10일 류태준&김미숙 집사님 가정. 감사합니다! 4월 12일에는 <캐슬펀크 아웃팅>을 나갔고, 19일에는 올해 두 번째 <밀알러 오리엔테이션>을 가졌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매월 초에 자모기도회를 시작하여 밀알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구하고 있습니다.

### 봄의 선물: 함께걸음콘서트

5월 25일(주일) 저녁 7시에 씨리장로교회 당에서 'Together through the Seasons'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매년 공연을 함께 하는 하모니아 앙상블이 비발디의 <사계>를 연주하고, 밴쿠버밀알합창단이 합창을 했습니다. 본 행사를 위하여 스폰서로 지원해 주신 분들과 기업, 그리고 교회에 정말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신 올해 함께걸음콘서트에서는 밀알 투게더팀이 정성껏 준비한 물품판매도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밀알 투게더는 밀알 친구들과 모든 종류의 여행을 떠나기 위한 희망여행 프로젝트를 위하여 시도하고 있는 펀드레이징 활동입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밀알 여름캠프

6월 26일부터 7월 1일까지는 미주서부지

역 밀알 연합캠프인 사랑의캠프(6/26-28, CSU Long Beach)에 참가하고, 이어서 밴쿠버 밀알만의 감동캠프(6/28-7/1, Riverside & LA)를 진행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에 깊이 잠기고, 또 안전한 캠프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밀알 1일 단기선교

<밀알 1일 단기선교>는 시간을 많이 내지 않고도, 멀리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도, 따로 휴가를 내지 않고도, 돈을 거의 들이지 않고도 단기선교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매주 토요일에 밀알이 진행하는 사랑의교실에 몇 시간 함께 하시는 것으로 훌륭한 단기선교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신 교회나 기관 단체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밀알선교사역 나눔

하나님의 은혜 가득한 밀알선교사역 및 장애인 '선교'에 관하여 관심이 있는 교회, 기관 및 단체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604-339-4417).

## [e-transfer 후원방법 안내

이트랜스퍼를 통하여 후원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밀알을 후원하시면 세금감면을 위한 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후원하실 때, 영문이름, 포스탈코드를 포함한 주소, 이메일을 남겨 주세요. (연락처: giving@vancouvermilal.com)

## 'The Prayer' & 'The Bridge'

밀알선교사역을 위한 중보기도에 헌신하실 분을 찾아 함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월 \$10(한 구좌) 정기후원하실 분들을 세우는 일입니다. 한 사람이 여러 구좌를 맡아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 기도와 동역을 부탁드립니다

- 장애인 전도 봉사 계몽의 사역을 잘 감당하여, 장애인의 회복으로 표상되는 하나님 나라의 임함에 쓰임 받게 하시고, 복음 사역, 성령사역, 하나님 나라 사역이 되게 하소서.
- 지역교회와 함께 장애인선교의 사명을 이루어가게 하소서. 지역교회 및 관심 있는 그룹들과 장애인 '선교'하는 밀알사역을 나누는 기회를 더 많이 갖게 하옵소서.
- 장애인이 행복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좋은 봉사자, 기도 및 재정 후원자들을 붙여주시고 그들을 축복하소서.
- 2025년 밴쿠버밀알의 모든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밴쿠버의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이 밀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 안에 살게 하소서.
- 기도와 성령으로 섬기는 밀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밀알,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밀알, '사람을 새롭게, 세상을 새롭게' 하는 사역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밀알로 세워주소서.
- 굿즈프로젝트 <투게더>가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우리 친구들을 잘 돕고, 사역에 인적, 물적 힘을 더하는 결과를 주옵소서.
- <밴쿠버밀알러프로젝트: 꿈너머 꿈> 조직이 튼튼하게 세워지고 연결이 잘 되게 하시어, 하나님나라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 매주 여는 <토요 사랑의교실>, <여름 사

랑의캠프 및 감동캠프, 6/27-7/1> 등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강물처럼 넘쳐 흐르게 하소서.

- 단장 이상현 목사님과 유혜정 사모님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 | 텍사스

### 토요 사랑의교실 (4월)

매주 토요일 10시부터 모여 찬양과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후에는 언어활동을 하고, Gym으로 옮겨 가서 발달에 필요한 여러가지 신체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에는 드럼으로 음악활동을 하면서 내년에 있을 공연연습도 하였고, 오늘 배운 말씀을 가지고 Art & Craft로 표현하면서 배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여러 교회, 단체 및 개인들께서 재정과 음식으로 섬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scape Bakery 에서는 봉사자들을 위한 베이커리로 섬겨 주셨고, 5일에는 라이트 하우스교회에서, 12일에는 한우리교회에서, 19일에는 조이풀교회에서 맛있는 음식으로 점심을 섬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26일에는 사랑기도원으로 밀알소풍을 다녀왔는데, 달라스투게더에서 찬양을 인도해 주셨고 라이트하우스교회에서 맛있는 바비큐 음식으로 점심을 섬겨 주셨습니다. 모든 분들의 헌신과 봉사에 감사드립니다.

점심봉사를 원하시는 개인과 단체는 임현정 전도사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또한 토요 사랑의교실에 참여하기 원하는 5세 이상 장애인들은 연락주세요. 267-815-6211, txmilal@gmail.com

### 밀알 오케스트라 제4회 정기연주회 개최

지난 5월10일 6시에 제자침례교회에서 밀알 오케스트라 제4회 정기 연주회가 있었습니다. 이번엔 Hymn이라는 주제로 우리를 하나님의 찬송으로 부르신 것을 기억하는 연주가 되기를 소망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에 DK. Foundation에서 장애인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고, 달라스 Master Chorale이 협연으로 함께 찬송했으며, 달라스 교회협의회에서 축복의 기도를 하며 순서를 마쳤습니다. 사랑의교실 학생들의 드럼 연주를 시작으로 클래식과 찬송가 편곡을 중심으로 연주가 진행되어 많은 분들로부터 매 해마다 날로 감동이 배가된다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이번 연주회를 통해 더 많은 지역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사역에 사랑을 모아 앞으로의 사역을 더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리셉션을 도와주신 부모님들과 주님의교회 지체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노래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 밀알 소풍

지난 4월 26일에는 밀알 소풍이 사랑수양관에서 있었습니다. 달라스투게더와 달라스 라이트하우스교회에서 함께 참여하여 풍성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달라스 청년연합모임인 달라스투게더는 매년 소풍때마다 함께 와서 찬양인도를 비롯, 식사와 여러 활동을 준비해주었는데, 올해는 라이트하우스교회에서 식사를 바비큐로 준비해주시며 함께 마음을 모았습니다. 부모님들도 간식과 음료를 통해 섬겨주셔서 주

안에서 즐거운 교제를 나누는 딱 좋은 하루였습니다.

### 밀알 아카데미 불학기 종강

아카데미 불학기가 지난 4월 24일에 마무리되었습니다. 함께 교사로 섬겨주신 첼로, 바이올린, 태권도, 탁구, craft, Bible study 선생님들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용봉사로 함께 해주신 카일, 클래어 부부에게, 달라스장애인체육회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전합니다. 다음에도 함께 해주실 거죠~! 방학을 지나며 가을 학기를 준비하겠습니다. 아카데미 교사로 섬기실 분들은 연락주세요. 267-467-5971, 아카데미에 관심있는 학생들의 연락도 기다립니다. txmilal@gmail.com

### 여름성경학교 1:1 자원봉사자 모집

장애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집중적으로 전하기 위해 여름성경학교를 7월 7일부터 11일까지 10시부터 2:30까지 진행합니다. 1:1 봉사자로 참여 가능한 분들이 필요합니다. 봉사를 원하시는 분들은 밀알선교단으로 문의주세요. (267-467-5971)

### 교사 자원봉사자 모집

- 매주 토요일, 10시부터 1시까지 진행되는 사랑의교실에 교사로 섬겨주실 봉사자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은사를 활용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원하세요.
- 매주 목요일 10:30-3:15에 진행되는 밀알 아카데미에 미술과 음악, 그리고 스포츠 교사로 섬겨주실 분을 찾습니다
- 매주 토요일 1:30에 진행되는 밀알 오케스트라에 피아노 봉사자가 필요합니다. 전공하셨거나 오랫동안 연주하신 분을 기다립니다. 더불어 오케스트라 5기 단원을 모집합니다. 현악, 관악, 타악, 밴드 등 여러분의 재능을 함께 나눠주세요.

### 기도합니다

- 텍사스밀알선교단을 통해서 장애인이 영적으로 회복되며 구원받을 수 있도록.
-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원 봉사자들을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함께 한 봉사자들이 밀알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며, 밀알에서 지속적으로 함께하는 동역자로 성장하게 하소서
- 2025년 밀알 여름성경학교를 위한 지역교회가 결정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을 보내주소서
- 사랑의교실 교사 봉사자를 세워주소서, 더불어 지금의 봉사자들이 다음 세대의 리더로 세워지게 하소서
-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언어, 미술, 운동, 행동치료 등의 전문가 그룹을 조성하게 하시어 밀알 토브 사역이 진행되게 하소서
- 지역의 여러 교회가 밀알 사역을 선교지로 알리게 하시어 선교에 동역하는 마음을 부어주소서. 그리하여 더 많은 이들에게 장애인 선교의 창을 보여줄 수 있도록 기도하소서
- 여름성경학교에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오게 하시며, 그들을 주장하사 하나님을 아는 지각을 허락하소서.
- 가을 사역을 준비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감동하사 하나님의 마음이 잘 펼쳐지는 사역이 준비되게 하소서

## | 남가주

■ INCOME: \$77,638.00

**Individuals: \$5,346.00** \$30 Youn G Ro / \$50 David S Shin, Hye Ran Lee, Jaebine Song, Moon K & Mal I Lee / \$55 Hyun Suk Jin / \$100 Anthony D & Chun C. Gamble, Ho Myoung & Won Sook Lee, June Sin, Sung Jin Kim, Young Soon Park / \$171 Missionary Deborah / \$200 Eunsook Park, Jaemin Youk, Jinkyung Choi / \$270 Keun Suk Park / \$300 David Heung & Jeong Mi Kim, Eun Chul Lee & SoonHee Lee, John Lee & Jae Hyang Lee, Joyce Lee / \$500 Chong Sil Spaven, Hong Royong Kim & Jung Soon Ku, Steven Chul Kim / \$1,000 Inju Uyehara

**Church & Business: \$10,320.00** \$50 Alabama Full Gospel Church / \$100 Han Woo Ri Korean P.C. of Riverside, Rev. Ko Young Chung, Salt Covenant Church / \$150 The Lighthouse Mission Church / \$200 Choong Hyun Ch(Good Samaritan Fellowship), El Paso Central Baptist Church, Light of Love Mission Church, Living Water Mission Church, The Church of the Nations / \$220 Bethel Korean Church / \$300 Berendo Street Baptist Church, Cerritos Presbyterian Church, Full Gospel LA Church, H.D. Grace Church, Irury LLC, New Life Evangelical Mission, Sarang Community Church, Shalom Church of So. California, The Church of Joy, The Lord's Community Church, The Love Korean Church / \$400 Bankcard Services, Beautiful Hill Presbyterian Church / \$500 General Metal Recycling Co., Sunnyside Pre. Church / \$600 Dae Heung Korean Presby. Church / \$900 Dong Shin Presby. Church of S.CA / \$1,000 Grace Mission University, New Life Korean Church

**Designated Donation: \$61,792.00** <Fidelity Charitable \$50> <Designated for Rent \$1,235> <Open Stewardship Foundation Grant \$15,000> <Class AGAPE \$300: \$100 Yuri Yi for OC / \$200 Laura Cho for Torrance> <Love Festival \$1,190> <Camp Fundraising \$21,017> <Camp AGAPE Fees \$14,200> <Camp AGAPE Donations \$1,800: \$200 Jung Ho Lee / \$500 Dong Hoon Kim / \$500 Sook Song / \$600 Jong Seung Lee> <Tuesday Worship \$7,000: \$500 Esther Choi / \$6,500 Okjoo Foundation>

■ EXPENSE: \$59,486.82

**Class AGAPE: \$2,954.58** Class Meals & Snacks \$1,035.39 / Class Materials & Supplies \$1,919.19

**Camp AGAPE: \$14,734.79** Pre-Camp Expenses \$258.29 / Advertising & Marketing \$734.83 / Venues \$13,600.00 / Camp Supplies \$141.67

**Love Festival: \$36.80**

**Media Mission: \$2,750.00** M & W Publication

**Charitable Supports: \$1,678.94** Periodic Supports \$500 / Palm Mission Church \$300 / Birthdays \$85.98 / Tuesday Worship \$664.35 / Thursday Worship \$128.61

**Fundraising Expenses: \$18,389.52** Merchandise(Namul, Beef Jerky, Cham Ki Leum, Hazelnut Coffeebeans) \$18,169.82 / Packaging Supplies \$219.70

**Payroll Expense: \$8,850.04** Salaries & Wages \$5,508.25 / Payroll Tax \$546.79 / Employee Benefit \$800. / Housing Support \$1,900

**Admin & Management: \$9,712.31** Rent \$6,374.83 / Woongjin \$150.23 / FBM \$331.84 / Telephone & Internet \$136.78 / Electricity \$190.13 / Alliance Fee \$1,083.78 / Office Meals \$294.12 / Bank Charges \$25 / SBA EIDL Interest \$213 / Business Taxes and Fees \$900 / Postage & Shipping \$12.60

**Auto Expense: \$379.84** Gas \$372.84 / Maintenance \$7

**Previous Month Carry over Balance: \$51,340.24**

**Next Month Carry over Balance: \$69,491.42**

### ■ Milal Scholarship Financial Report

**INCOME: \$1,600.00** <Church & Business \$600: \$300 Irvine Onnuri Church / \$300 Milal Mission in Philadelphia> <Specials & designated \$1,000: Julianne Lee designated for Jonghoon Lee>

**EXPENSE: \$18,503.44** <Class AGAPE \$7,191.18: Teachers' Compensation> <Scholarship \$11,128: \$2,100 Collegians / \$900 Volunteer Aids / \$1,000 Designated to Jong Hoon Lee / \$6,228 Reserved Ministers Supports / \$900 Third Countries> <Milal Night Expenses \$159.26: Preparation> <Scholarship Bank Charge \$25>

**Previous Carry over Balance: \$38,809.85**

**Next Month Carry over Balance: \$21,906.41**

## | 북가주

■ INCOME: \$24,383.20

**Individuals: \$4,700.00** \$40 김신자, 김애경 / \$50 Misuk Kim, 김영, 나정화, 이우성, 정찬미&이석권 / \$70 김성준 / \$100 Klepeis Family, Jonathan & Joung Ok Han, 공은정&명진, 김만중&정애, 안소영, 전원일&연실 / \$150 애디김가정 / \$200 김유진, 배매희, 최영훈&재현, 최희자 / \$250 Michael & Dongsiik Lee / \$300 김정기 & 남경아, 오영수 / \$400 이지선&학천 / \$500 차현상&김은미 / \$1,000 박진호

**Church & Business: \$4,190.37** \$28.37 IBM / \$57 새소망교회 / \$100 산호세순복음중앙교회 / \$120 순복음산호세교회 / \$200 브루스리미용실, 이스트베이한빛교회, 좋은땅침례교회, The Light of Christ Church, Luxe Apparel & Gift / \$300 심포니교회 / \$400 뉴라이프교회 / \$500 우드맨보험 / \$1,685 실리콘밸리장로교회

**Designated Donation: \$15,492.83** <사랑의교실 \$500: \$100 김정기&남경아 / \$400 안수빈&예빈가정> <청년밀알 \$650: \$100 마이클가정, 박상우가정 / \$150 애디김가정 / \$300 엠마오선교> <화요예배 \$420: \$100 김정기&남경아, 권유진&이강진 / \$220 전송화> <사랑의캠프 \$13,734.83: \$800 토마스가정 / \$1,500 이광연 & 지선 / 참가비 \$4,800 / 참기름판매수익금 \$6,634.83> <맥시코밀 알 지정후원금 \$188: 이한봉&로사>

■ EXPENSE: \$23,610.48

**Mission Expense: \$19,494.30** 사례비(5인) \$7,276.16 / 선교활동비 \$332.23 / 미주밀알지원 \$534.83 / 은급비 \$300 / 사랑의교실 \$136.48 / 화요예배 \$346.30 / 사랑의캠프 \$10,568.30 (참가비 \$8,000, 항공권 \$2,568.30)

**Admin & Management: \$2,417.86** 사무용품 \$92.53 / 유틸리

티 \$271.42 / IRS Tax \$489.54 / 사무실 임대료 \$1,400 / 수수료 \$14.37 / 회계사 1Q2025 \$150

**Auto Expense: \$288.36** 유류비

**Media Mission: \$1,409.96** 밀알&세계 발송비 \$307.56 / 밀알 &세계 인쇄비 \$1,102.40

**Previous Month Carry over Balance: \$30,018.31**

**Next Month Carry over Balance: \$30,791.03**

## | 시애틀

■ **INCOME: \$53,438.00**

**Individuals: \$3,360.00** \$30 남숙희, 정은옥 / \$50 박진경, 이영자, 조성배, 오수미 / \$100 송인숙, 경자훈, 노현숙, 김복조, 김해정, 송영수, 황영자, 김상수 / \$200 조천석, 문창선 / \$300 김초미 / \$400 장영준&장아련 / \$500 Jung Hun Lee / \$700 이명운

**Churches: \$2,810.00** \$100 순복음 큰빛교회, 밴쿠버 사랑장로교회, 자유교회, 벨링햄 화평교회, 타코마삼일교회, 퓨얼럽한인장로교회X2 / \$150 페더럴웨이 뱀엘침례교회 / \$200 페더럴웨이중앙장로교회 / \$300 에버딘연합장로교회 / \$360 선한목자교회 / \$500 시애틀제일침례교회 / \$600 시애틀한인장로교회

**Businesses: \$500.00** \$100 임학수CPA, Hana Teriyaki / \$300 Fair Ridge Law Firm

**Designated Donation: \$46,768.00** \$1,500 SMA & TMA / \$40,868 Fundraising(참기름) / \$4,400 사랑의캠프 회비

■ **EXPENSE: \$45,291.06**

Mission Expense \$3,655.51 / Admin & Management \$1,745.18 / Media Mission \$1,814.41 / Class AGAPE \$780.02 / Dues to LA \$363.60 / SMA&TMA \$1,559.53 / Tax \$447.97 / Special event \$49.54 / Fundraising \$33,696.00 / Insurances \$583.77 / Pastoral Visit \$295.53 / Retirement Plan \$300

**Previous month carry over balance: \$55,414.24**

**Next month carry over balance: \$63,561.18**

## | 밴쿠버

■ **INCOME: \$6,169.11**

**Individuals: \$1,440.00** \$10 김다현, 계영실 / \$20 이경순, 한은순, 정미영, 김성은 / \$30 원소현, 테레사회, 정승식 / \$50 이해영, 오정석, 강시영, 이재림, 무명 / \$100 광혜경, 이덕재, 김계은, 이상현 유혜정 / \$200 하준석, 윤영로, 서동구(#57)

**Church & Business: \$2,980.00** \$100 헤브론교회(#6609) / \$200 오로니아 / \$280 사랑의교회(2/4) / \$900 그레이스한인교회(2/4) / \$1,500 버나비한인교회(#145)

**Specials & Designated Donation: \$1,749.11** <4월 사랑의교실 예배헌금 \$400: \$10 윤관진, 서동구 / \$20 이해, 봉에드윈, 김도건, 오예찬, 차평강 / \$50 김민재, 이예담 / \$80 박수영 / \$100 이호재(서남회)> <Designated \$500: Coram Deo(4월, #3784)> <캐슬펀파크 참가비 \$480> <여름캠프 항공료 \$300: 박소울(박정미)> <리턴 \$69.11: LA캠프 펀드레이저 오픈마이크 초과지출분>

■ **EXPENSE: \$9,867.00**

**Payrolls: \$4,243.30** 사례비(2인) \$3,793.30 / 임금비(1/4) \$450

**Mission Expense: \$71.05** 활동비

**Events: \$338.08** <함께걸음콘서트> 준비활동 \$99.52 / 포스터·티켓 인쇄비 \$238.56

**Class AGAPE: \$140.31** <Happy Together Class> 통신비 \$61.60 / 방문 \$78.71

**Admin & Management: \$3,077.20** <General \$77.20: 통신비 \$67.20 / 은행피 \$10> <Rent \$3,000: 사랑의교실베뉴(전반기)>

Taxes: \$486.65 Payroll(4월)

**Auto Expenses: \$1,008.31** 밴 할부금(4월) \$644.31 / 운행비 \$364

**Designated: \$500.00** 코람데오 (4월)

**Previous Month Carry over Balance: \$13,151.48**

**Next Month Carry over Balance: \$9,453.59**

## | 텍사스

■ **INCOME: \$7,821.53**

**Individuals: \$695.00** \$20 진현주 / \$25 방진원 / \$50 김태남&이선화, 김희경, 정선혜 / \$80 정호영 / \$100 이인성&임지선 / \$320 채경수

**Church & Business: \$1,456.53** \$6.53 Interest / \$50 프렌즈교회, 포드워스제일장로교회 / \$100 주님의교회, 빛과소금의교회, 라이프교회 / \$150 영락장로교회 / \$200 JDX Mission, 라이트하우스교회, 코너스톤한인침례교회 / \$300 달라스참빛교회

**Designated Donation: \$5,670.00** <사랑의교실 \$1,170: \$100 무명 / \$170 임현정 / \$300 Justin Kim / \$600 김개수&이인화> <아카데미&오케스트라 \$4,100: \$100 북텍사스한인상공회, 구본진 / \$4,000 Open Bank Stewardship Program> <직업재활 \$300: 세미한교회 Beanyard Coffee>

**Food Support:** Escape Bakery, 라이트하우스교회, 한우리교회, 조이풀교회, 달라스투게더

■ **EXPENSE: \$6,607.25**

**Mission Expense: \$4,476.16** Payroll \$1,385.25 / Housing Support \$1,700 / 밀알&세계 인쇄비 \$355 / 지단상회비 \$182.88 / 임금비 \$288.02 / 간사사례 \$500 / 단장활동비 \$23.98 / 지역교회 방문 \$41.03

**Class Agape & 밀알아카데미 & 오케스트라: \$1,038.33** 밀알소풍 \$127.98 / 아카데미강사료 \$650 / 직업재활 \$85.50 / 연주회포스터 및 프린트 \$174.85

**Admin & Management: \$1,092.76** 장소사용료 \$200 / 은행카드 수수료 \$96.84 / IRA Tax \$229.50 / 통신비 \$240.42 / NTTA Toll \$80 / CPA 수수료 \$100 / 우표 \$146

**Previous Month Carry over Balance: \$6,788.69**

**Next Month Carry over Balance: \$8,002.97**

# 밀알선교단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 복음을 전합니다.

장애인 발굴, 장애인 방문 예배, 장애인 성경공부, 단원 정기모임, 병원전도,  
사랑의캠ป์, 장애아동 사랑의 교실, 밀알지부 개척, 선교사 파송 및 지원

## 서로 어려움을 나눕니다.

시각장애인, 중증장애인을 위한 녹음, 복지홈 운영, 수어통역, Ride 봉사

## 신앙공동체에 참사랑을 심습니다.

교회 및 단체 방문 찬양과 설교, 수어교육, 밀알의밤, 장애인의 날 행사, 매월 <밀알&세계>발간, 장애인 선교방송

후원방법: 아래의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가까운 밀알선교단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 밀알단원 신청서

성명: 한글 \_\_\_\_\_ 영문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이메일: \_\_\_\_\_

단원종류: 기도단원( ) 실행단원( ) 후원단원( ) 월 \$5( ) \$10( ) \$20( ) \$30( ) \$50( ) \$100( ) 그외 \$( )

서명: \_\_\_\_\_ 날짜: \_\_\_\_\_

## The World Milal Association 세계밀알연합 | worldmilal.org

서울 동작구 솔밭로 97-6, 3층 / Tel: 02-533-9251 / Fax: 02-533-9258 / wmilal@worldmilal.org

## American Milal Mission Inc. 미주밀알선교단

14545 Valley View Ave, Suite S, Santa Fe Springs, CA 90670 / Tel: 562-229-0001 / Fax: 562-229-0006 / wheatmissioninus@gmail.com

## Milal Mission in Southern California 남가주밀알선교단 (이종희 단장) | milalsca.org

14545 Valley View Ave, Suite S, Santa Fe Springs, CA 90670 / Tel: 562-229-0001 / admin@milalsca.org

|       |      |  |           |  |
|-------|------|--|-----------|--|
| 정기모임  | OC   | 매주 목 오후 7:00                                     | 주님의빛교회    |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
|       | LA   | 매주 화 오후 7:00                                     | 남가주새누리교회  | 975 S. Berendo St, Los Angeles, CA 90006                   |
|       | 밝은예배 | 매월 마지막 화요일 오후 7:00<br>(현재는 Zoom으로 드리는 월례기도회로 대체) | 주님의영광교회   |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
| 사랑의교실 | OC   | 매주 토 오전 10:00 ~ 오후 2:00                          | 남가주연합장로교회 | 1565 W. Katella Ave., Anaheim, CA, 92802                   |
|       | LA   | 매주 토 오전 10:00 ~ 오후 2:00                          | 주님의영광교회   |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
|       | 동부   | 매주 토 오전 10:00 ~ 오후 2:00                          | 선한청지기교회   | 2701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
|       | 얼바인  | 매주 토 오전 9:30 ~ 오후 1:30                           | 얼바인은누리교회  |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
|       | 토렌스  | 매주 토 오전 9:30 ~ 오후 1:30                           | 토렌스제일장로교회 | 1880 Crenshaw Bl., Torrance, CA 90501                      |
|       | 성인   | 매주 토 오전 10:00 ~ 오후 2:00                          | 남가주밀알 사무실 | 14545 Valley View Ave. Suite S, Santa Fe Springs, CA 90670 |

## Milal Mission in Northern California 북가주밀알선교단 (김정기 단장) | milalnc.org

871 Coleman Ave. Suite 205, San Jose, CA 95110 / Tel: 408-605-2134 / norcalmilal@gmail.com

장애인과 함께 나누는 예배와 찬양모임

|        |       |                         |                    |  |
|--------|-------|-------------------------|--------------------|--|
| 정기화요모임 | 산호세   | 매주 화요일 저녁 6:30 ~ 9:00   | 세계선교침례교회(1,2,4,5주) | 62 S.San Tomas Aquino Rd, Campbell, CA 95008 |
|        |       |                         | 산호세한인장로교회(3주)      | 770 Lucerne Dr. Sunnyvale, CA 94085          |
| 사랑의교실  | 산호세   | 매주 토 오전 10:00 ~ 오후 3:00 | 산호세새소망교회           | 2900 Patrick Henry Dr. Santa Clara, CA 95054 |
|        | 산타클라라 | 매주 토 오전 10:30 ~ 오후 3:30 | 산타클라라연합감리교회        | 1001 Ginger Lane, San Jose, CA 95128         |

## Milal Mission in Seattle 시애틀밀알선교단 (장영준 단장) | seattlemilal.com

8506 238th St. SW, Edmonds, WA 98026 / Tel: 425-444-1669 / Fax: 425-774-2499 / seattlewheat@yahoo.com

|                                |  |                           |           |  |
|--------------------------------|--|---------------------------|-----------|--|
| 사랑의교실 시애틀                      |  | 매주 토요일 오전 10:30 ~ 오후 2:30 | 시애틀연합장로교회 | 8506 238th. SW, Edmonds, WA 98026        |
| Seattle Milal Academy (성인 장애인) |  | 매주 화요일 오전 10:30 ~ 오후 3:00 | 시애틀형제교회   | 3700 Monte Villa Pkwy. Bothell, WA 98021 |
| Tacoma Milal Academy (성인 장애인)  |  | 매주 목요일 오전 11:00 ~ 오후 3:00 | 타코마중앙장로교회 | 8001 Pine St. S. Lakewood, WA 98499      |

## Milal Mission in Vancouver 밴쿠버밀알선교단 (이상현 단장) | vancouvermilal.com

Instagram: @Vancouver\_milal | Youtube: @Woorilog 우리로그, @Vancouvermilal 밴쿠버밀알

14625 108 Ave, Surrey, Upper Room, BC, V3R 1V9 CANADA / Tel: 604-339-4417 / vanmilal01@gmail.com

|       |                     |                            |   |                                      |
|-------|---------------------|----------------------------|---|--------------------------------------|
| 사랑의교실 | 토요모임 Happy Together | 매주 토요일 오전 10:00 ~ 오후 12:00 | 씨리장로교회  | 15964 88th Ave., Surrey, BC, V4N 1H5 |
|       |                     |                            | 예배, 작업치료, 음악, 댄스, 사진, 크래프트, 운동, 레크레이션, 베이킹, 공동식사, 아웃팅, 난타교실 |                                      |

## Texas Milal Mission 텍사스밀알선교단 (채경수 단장) | txmilal.org | facebook.com/texasmilal

2828 E. Trinity Mills Rd, #360, Carrollton, TX 75006 / Tel : 267-467-5971 / Fax: 682-292-1365 / txmilal@gmail.com

|             |                           |  |  |
|-------------|---------------------------|--|--|
| 사랑의교실       | 매주 토요일 오전 9:30 ~ 오후 1:30  | 한우리미션센터                                    | 1835 Pearl St. Carrollton, TX 75006                  |
| 밀알성경적상담     | 매주 월~금 오전 10:00 ~ 오후 3:00 | 밀알선교센터                                     | 2828 E. Trinity Mills Rd, #300, Carrollton, TX 75006 |
| 목요 밀알아카데미   | 매주 목요일 오후 1:00 ~ 오후 4:00  | 달라스우리교회                                    | 2633 Royal Ln, Dallas, TX 75229                      |
| 밀알청년모임      | 매주 목요일 오후 5:00 ~ 오후 6:00  | 한우리미션센터                                    | 1835 Pearl St. Carrollton, TX 75006                  |
| 밀알 청년오케스트라  | 매주 토요일 오후 2:00 ~ 오후 4:00  | 한우리미션센터                                    | 1835 Pearl St. Carrollton, TX 75006                  |
| 화요 온라인 기도모임 | 매주 화요일 오후 7:00            | Zoom ID: 895 0864 4965 / Passcode : 152562 |  |

### 전세계에 퍼져있는 밀알들

|                 |  |
|-----------------|--|
| <b>세밀연 미주총단</b> | 워싱턴 / 리치몬드 / 캐롤라이나 / 필라델피아 / 시카고 / 뉴욕 / 뉴저지 / 애틀랜타 / 시애틀 / 북가주 / 남가주 / 텍사스 / 마이애미 / 캐나다(토론토) / 밴쿠버 / 브라질 / 파라과이 / 아르헨티나 / 과테말라 / 멕시코 |
| <b>세밀연 유럽총단</b> | 북부독일 / 중부독일 / 남부독일 / 베를린 / 오스트리아 / 프랑스 / 스페인 / 포르투갈 / 헝가리 / 벨기에 / 우크라이나 / 바르셀로나 / 베오그라드 / 코소보  |
| <b>세밀연 한국총단</b> | 경기 / 전남동부 / 김포강화 / 거제통영 / 목포 / 부산 / 수원 / 용인 / 고양 / 구미김천 / 양산 / 경기광주 / 고흥보성   |
| <b>기타지역</b>     | 뉴질랜드 / 호주 / C국(A,B) / 방글라데시  |